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4월 23일(주일) 제1439호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행복드림콘서트'
5월 8일 오후 6시 서빙고 본당, 선착순 마감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선물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이하 행복드림콘서트)'가 오는 5월 8일(월)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신청을 하고 반드시 SNS 카카오톡에서 '행복드림 2023'을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 행복드림콘서트 집회 안내, 공지, 문의 등을 카카오톡 채널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번 행복드림콘서트에서는 세시봉 유희주, 크룩스(가스펠 보컬 밴드)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행복드림콘서트 요청자 기도모임도 한다. 4월 24일(월) 오후 8시 온라인(Zoom), 5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선교관 지하1층)에서 기도모임을 한다. 행복드림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식도 이어진다. 5월 28일(주일) 오후 7시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초대인 글에서 "행복드림콘서트를 통해서 부모님께 소중한 행복을 선물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 2023' 채팅창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세계관학교 포럼

4월 25일, 5월 2일 온라인(Zoom)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 '로잔운동과 세계관'을 주제로 봄학기 포럼을 개최한다. 4월 25일(화)과 5월 2일(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한국로잔이사회 최형근 교수(서울

신학대학교)가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보는 다원주의',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보는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래 QR코드로 하면 된다. 화비는 없다. 아이스콜 학

점도 부여되지 않는다.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인본주의적 관점에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정기적으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02-3215-3713



온누리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5월 17~19일 서빙고 본당, 온라인(유튜브)

2023 온누리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이 막 오른다. 5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유튜브 실시간중계)으로 진행된다. 온누리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영혼과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장(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돌보고, 치유하는 다양한 강의와 간증이 이어질 예정이다. 온누리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은 일별 주제에 따라 진행된다. 17일(수) '감정 돌봄'을 주제로 간증과 강의를 한다. 권수영 교수(연세대 상담코칭학과)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박상미 대표(더공감마음학교)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남윤영 교수(서울여대 아동학과) '감정코치'를 주제로 강의한다.

18일(목) '정신 돌봄'을 주제로 사랑채버 특순, 패널토크,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남윤영 전문의(한마음정신회복예배) '스트레스 과잉시대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강의한다. 19일(금)은 '영혼 돌봄'이 주제다. 이만홍 교수(로템정신과 의원 원장) '자아돌봄에서 영혼돌봄으로',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임마누엘 치유와 마음돌봄',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고통의 치유와 영적 돌봄'을 주제로 강의한다. 온누리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5월 14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혹은 온라인 참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화비는 3만 원. 문의: 02-3215-3532 / 정현주 기자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달리자!

4월 23일까지 '달려라풍당' 참가자 모집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풍당' 참가자를 4월 23일(일)까지 모집한다. 네이버폼(QR코드 참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달려라풍당'은 걷기, 러닝, 라이딩,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거리 측정이 가능한 운동에 참여하고, 누적된 거리만큼 다음세대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4월 29일(토)부터 5월 28일(일)까지 진행 된다.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기독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풍당교회학교 사역에 사용된다.

'달려라풍당' 이벤트와 '캠퍼스별 스페셜라이딩'도 한다(하단 표 참조). 최장거리상 5명에게 갤럭시워치5, 최고나눔상 1명 스마트TV, 차세대어린이 5명에게 어린이 자전거, 그룹상 등을 시상한다. 최고나눔상의 시상품은 수상자의 이름으로 풍당교회학교에 기증한다. 각 캠퍼스별로 진행되는 '달려라풍당데이' 참가자 선착순 1500명에게 기념 티셔츠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CG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캠퍼스별 스페셜 라이딩

캠퍼스	행사 일시	장소
서빙고	4/29(토) 10:30~16:00	서빙고온누리교회
양재(도곡)	4/29(토) 10:30~16:00	양재온누리교회
평택	4/29(토) 10:00~12:00	내리문화공원
남양주	4/29(토) 14:00~16:00	구리한강시민공원
대전	4/29(토) 10:00~14:00	한남대학교
양지	5/6(토) 14:00~16:00	마장산책로
수원	5/13(토) 14:00~18:00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강동	5/13(토) 10:30~13:00	올림픽공원
인천	5/13(토) 11:00~13:00	송도글로벌파크
부천(등산)	5/13(토) 10:00~13:00	인천 월미산
영종	5/13(토) 16:00~18:00	씨사이드파크
세종교육관	5/13(토) 10:00~12:00	금강보행교
부천(라이딩)	5/20(토) 10:00~13:00	한강 아라뱃길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대적들에게 복수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신성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앞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려 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과 불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선하고, 의로우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 영광을 비준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거나 악함을 돌키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도 두려워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몇 사람은 개별적인 만남을 가져 주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을 가진 여인들

부활의 기록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 주신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이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만일 부활의 기록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문서라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라는 시나리오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활의 모든 기록을 증거하는 신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불신자들이 “무덤을 오인했다”, “잘못 찾아갔다”,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이 쌍둥이었다” 등 별의별 몸부림을 치다 결국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신약 자체가 만들어진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신약 성경의 부활 기록 자체를 만들어진 이야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천동설을 믿었던 시대에 지동설로 어떤 스토

왜 울고 있느냐

요한복음 20:11~18

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상상 속에도 있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은 단지 부활의 사실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깊이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와의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멀찍이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이 떨어진 사람이겠고, 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가까이 있었던 이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사랑이 있었겠고,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성제자들과 함께 안식 이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가까이 있었기에 시신을 수습할 시간 없이 돌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골짜기에 버려지거나 불태워지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 다. 무덤에 안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변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고, 빌라도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돌무덤에 안치한 것은 구약에 메시아가 죽음 당한 이후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다는 예언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돌무덤에 안치되려면 시신이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향품이 발라진 상태로 어느 정도 보존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돌무덤에 안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봉인되었습니다. 무덤 문이 봉인되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염려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굳게 문이 닫혀 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군병들에게 돌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들 열어줄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봉인된 문은 수십 명의 장정이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왜 향품을 들고 갔을까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여인들이 하러 간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여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찾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순수한 사랑을 가진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만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시나 다른 어떤 이유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눈물의 이유 기쁨의 눈물, 승리의 눈물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시도록 도우려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의 발걸음을 아셨고,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첫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돌문이 열려 있지 않고, 무덤 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면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취급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들도 달려와서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의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요 20:9-10).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1절이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11절).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일단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 시신이 없어진 무덤 밖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 없었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어제 죽으셨습니다.
언제 다시 사셨습니까? 오늘입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내일입니다.
매주 주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빈 무덤을 그냥 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무덤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처참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눈물은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눈물이기도 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깊은 제자조차 부활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서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마리아의 눈물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빈 무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눈물이라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눈물이지만 또한 불신의 눈물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불신의 눈물일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13절).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사람들이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불신의 눈물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증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패배자처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빈 무덤이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빈 무덤은 기쁨의 장소임에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슬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이 없고, 헌신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깊은 헌신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무덤에도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가장 깊이 사랑하고, 가장 헌신된 제자에게도 불신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르게 믿지 않

면 모든 신앙이 희미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빈 무덤, 승리의 현장에서 패배자처럼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눈물의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눈물인 것 같은데 때로는 그 안에 죄가 들어있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 승리의 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있을 때 나타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여전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15절).

예수님도 천사가 질문한 동일한 질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질문이 두 번이나 주어집니다. 이 질문이 주어진 것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대할 때 가장 어울리지 않는 태도는 죽임 당하신 십자가에 시신이 머물러 있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도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예수님을 동정하는 기간으로 보낸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는 동정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 곧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올라”고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빈 무덤을 남기

고 부활하셨는데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느냐?”고 두 번씩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아”라고 하시자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랍오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랍비보다 훨씬 높은 경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평소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에게서 물러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여라’(17절).

“나를 만지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단지 여인이었기 때문일까요?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인에게에는 “나를 만지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나를 붙잡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깨닫고,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죽음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이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천상에서 사역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전의 모습으로만 알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믿음도 때로 나만의 예수님, 우리만의 예수님으로 붙잡아 두려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분, 온 세상의 예수님이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마리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그 시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7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실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너희도 장차 하나님께로 나와 같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을 받고 나타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자 또한 불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오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온전한 관계, 온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쁨의 눈물,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마리아의 눈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의 이유, 헌신의 이유, 사랑의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닌 것은 마리아처럼 자신이 왜 우는지 모르고 우는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첫 주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사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어제 죽으셨습니다. 언제 다시 사셨습니까? 오늘입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내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긴장이어야 합니다. 매주 주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후성유전학은 같은 종 안의 형태변화를 설명한다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DNA의 염기서열이 모두 밝혀지면 인간의 질환을 모두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개개인에서 발견된 염기서열의 변이가 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여전히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NCODE(Encyclopedia of DNA Element) 프로젝트가 2003년부터 진행 중에 있다.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인간 DNA의 전체 30억 염기서열 중에서 2% 정도만이 단백질 유전정보를 함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과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98%는 쓰레기(Junk) DNA라고 무시했다. 그러나 ENCODE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정크 DNA 부분에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암호들이 존재하며 단백질 유전정보의 발현 양, 시기, 부위를 조절하는데 나머지 98%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과 침팬지의 DNA 서열 중에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2% 중에서도 일부만을 비교해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체가 98-99% 비슷하다고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 유사성을 인간이 침팬지에서 진화해 온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Science>지에 인간과 침팬지 DNA의 유사성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 1%의 신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존 코헨은 이들 1% 차이를 주장한 논문들은 단백질을 암호화한 부분만 비교해 진화론을 지지하는 자료를 제공한 신화적 이야기이며, 최소한 5%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체 차이가 1%라고 발표한 2005년 논문의 원자료에서 그들이 비교했던 특정 부분만이 아닌 전체 유전체를 비교했을 때는 유사도가 81%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Y-염색체의 경우는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30% 이상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알려졌다. ENCODE 프로젝트로 밝혀진 사실을 반영할 때 침팬지와 사람 유전체의 비슷한 정도가 80% 이하라는 해석이 더 신뢰받게 되었다. 또 침팬지와 사람은 염색체 수와 염색체 상의 유전자 배열이 달라서 두 종간의 생식이 불가능하다.

“전체 유전체의 염기서열 비교와
염색체 구조 비교를 통한 더 확실한
종 분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진화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NCODE 프로젝트는 정크 DNA 대부분이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안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발현하느냐를 조절하는 것을 밝혔다. 신체의 구조나 생김새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의 발현 부위, 시기, 양의 변화이며 그렇게 결정된 형태로 종 분류를 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생물 형태변화의 원인, 즉 진화의 증거를 단백질 암호화하는 DNA 염기서열의 유전적 변이로 설명한다. 유전정보의 염기서열이 비가역적으로 변해서 형태의 변화와 그 축적에 의해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충분한 형태변화(진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종간의 차이는 너무 커서 수백만 년에도 일어날 수 없다.**

진화론자들은 갈라파고스섬의 핀치새의 부리 모양으로 종을 다양하게 분류해 놓았다. 그러나 엘리뇨나 라니냐 현상 같은 해수 온도의 이상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의해 새의 부리 모양이 2-3년 만에 급속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다. 발생학과 분자생물학 연구 결과는 BMP4와 Calmodulin이라는 유전자가 어떤 시기에 어떤 부위에서 얼마나 발현하느냐에 의해 부리의 길이, 폭, 높이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형태변화 이유는 급격한 기온에 의한 사막화(라니냐)나 장기적인 경우에 따른 밀림화(엘리뇨)에 의해 핀치새들이 구할 수 있는 먹이의 변화가 형태를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부위, 시기, 양에 변화를 일으켰음을 예상할 수 있다.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서열의 A, G, C, T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이 변화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달된다. 반면 후성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서열에는 변화 없이 그것을 수식하는 부분만 변하는 것으로, 그 수식과 연관되는 환경의 조건이 바뀌면 원상태 그대로 되돌아간다. 유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전되더라도 1-2세대 이내에 복귀한다.

듀크 대학의 랜디 저틀 교수는 똑같은 유전정보를 가진 임신한 생쥐에 염산이 강화된 먹이와 염산이 부족한 먹이를 각각 주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유전정보가 동일함에도 염산이 부족한 먹이를 섭취한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들에는 아구티(밝은 갈색) 유전자가 발현되어 밝은 갈색 털에 비만하고, 당뇨와 암에 쉽게 걸리는 새끼들이 태어났다. 반면 염산이 충분한 먹이를 섭취한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는 진한 갈색 털에 날씬하고 건강한 새끼들이 태어났다. DNA 염기서열이 100% 같더라도 다른 종이라고 오해할 만큼 아주 큰 형태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현대의 생물학은 아직까지 1750년대 린네의 방식에 따라 오직 형태만으로 생물의 종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분류에 따른 진화를 논하고 있다.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이 발달하고, 분자유전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전체 유전체의 염기서열 비교와 염색체 구조 비교를 통한 더 확실한 종 분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진화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로잔운동과 복음의 총체성 그리고 실천방안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로잔운동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렌즈(lens)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다. 지리적,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온 세상을 향한 운동이다. 로잔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는 담대한 겸손(Bold Humility), 위험을 감수하고 공적 분야에서 복음의 본질과 급진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정직함과 순결함(Integrity, Purity), 예수 그리스도의(HIS) 길을 따라 걷는 겸손한 삶의 방식(Lifestyle)이라는 정신(Spirit)

을 체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로잔운동은 선교운동, 갱신운동, 신학운동, 문서운동(사도적, 예언자적, 목회적 선교운동)이다.

1974년 이래 지난 50년 동안 로잔운동은 세속사회의 가치관이 추구하는 다양한 우상숭배에 저항하는 대항 문화적이고, 대조 사회적인 운동으로써 자리매김 해왔다. 사회문화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세계관은 학습되고, 습득되며, 공유하는 성격을 띤다. 한 민족이나 언어에서 세계관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핵심가치를 구성한다. 오늘날 세계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진리는 역사적 사실(fact)이며, 성경은 온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인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 이야기는 총체적 진리이며, 사실과 분리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복음의 총체성은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공적 영역에서 가장 잘 구현된다. 세속사회라는 공적 영역은 사회문화적 다원성뿐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복음의 보편적 진리를 거부한다. 따라서 교회는 일터(정치, 경제, 교육, 의료, 미디어, 예술, 과학기술, 환경 등)라는 공적 영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변증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구비하고 양육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공적 분야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시민사회운동, 공공정책 결정, 비즈니스 분야, 학문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연관된 인적 자원을 갖춰야 한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로잔운동의 신학은 “세계 선교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일터 그리스도인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자”라는 표제에 명확하게 표현된다. 로잔운동의 실천적 강령은 기독교 신앙의 사사회(privatization of Christian faith)를 극복하려는 참신한 시도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복음실천(예배, 교제, 제자도, 증거)은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언자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상이 사역의 장(場)이고, 선교의 장이며, 기능적 측면에서 안수받은 성직자와 성도는 구분되지만, 본질적 측면에서 그들 모두 세상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급속한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세대에서 영적 탐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부상하는 세대들을 위한 복음의 접착점인 음악, 미술, 춤, 이야기, 시각 이미지, 인터넷 등 과학기술과 접목된 분야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복음 전도에 활용하고, 기독교의 역할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케이프타운서약(2010년 제3차 로잔대회 공식문서)은 이러한 이슈들을 탐구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정통교리(orthodoxy)와 정통실천(orthopraxy)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정통체험(orthopathy)에 관한 것임을 총체적으로 표방한다. 2024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통치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자!”라는 주제로 다원화되고, 세계화된 세상에서 복음의 총체성을 더욱 명료하게 강조하고 실천방안을 함께 탐구할 것이다.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공적 영역에서 구현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영적 갱신을 가져올 핵심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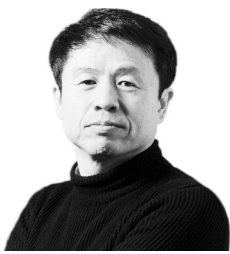
이단·사이비 OUT! 3. 구원파

성경적 구원관 정립! 건전한 종말론 교육!

구원파(유병언, 박옥수, 이요한) 교리의 오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파장이 거세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현혹하는 4개의 사이비 종교(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실체와 피해를 다뤘다.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폐단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연재 '이단·사이비 OUT!' 지면을 마련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점과 그 대처법을 설명한다. 세 번째 순서는 '구원파'의 실상과 폐해다.

/ 편집자 주



탁지원 소장
(월간 현대종교 대표)

9년 전 세월호 침몰 사건에 '구원파'라는 단체가 깊숙이 개입된 일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기독교복음침례회'란 이름을 사용하는 유병언 구원파는 1987년 경기도 용인의 모 공장

식당 천장에서 32구의 시신이 발견된 오대양 사건 등 지금껏 직간접적으로 여러 사건과 의혹들을 몰고 다녔다.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든 단체이기도 하다. 부디 세월호 침몰 사건 등 그간 여러 이단 관련 사건의 결말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여기에 두 곳의 구원파(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이요한 생명의말씀선교회)가 가세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신천지만큼 주목했으면 한다.

구원파의 종류와 특징 유병언, 박옥수, 이요한 계열

구원파는 미국 등지에서 파송된 자칭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입된 이단'이라 할 수 있다. 구원론의 문제 등으로 보통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크게 세 계열로 나뉜다. 그 이름도 각기 다르다.

유병언(권신찬) 계열은 기독교복음침례회(정통 침례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한국침례회'), 박옥수와 이요한 계열은 '대한예수교침례회'라는 이름이 있고, 각각 '기쁜소식선교회'와 '생명의말씀선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자신들만 구원받고, 한 번 회개하면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한국 교회로부터(1985년~2014년까지) 모두 이단으로 규정됐다.

첫째, 유병언(권신찬) 계열 구원파는 서울 삼각지에 있는 서울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이나 운영체가 중앙 집권적이고, 장로와 집사 등 직분자가 없다. 교회 수는 국내 100여 개 이상 있고, 교직자 및 교인 수는 만여 명 내외로 추정된다. 창교자 권신찬(1996년 사망)이 교인들에게 재침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되어 목사 면직을 받았다.



구원파 계열인 고 유병언(기독교복음침례회), 박옥수(기쁜소식선교회), 이요한(생명의말씀선교회)(왼쪽부터).

**“성경적인 구원관을 정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건전한 종말론에 대해 잘 이해하고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이단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유병언(2014년 사망)은 권신찬의 외동딸과 결혼했는데, 사업 확장에 주력하며 막대한 사업자금을 교인들의 헌금과 사채로 충당했다. 오대양 사건(1987년 오대양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자살 사건) 이후 많은 이탈자가 생겨 교세가 위축되기도 했으나 아직도 여러 교회와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이 일단 죄 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양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육신적인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므로 행위 주장은 잘못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기도는 필요 없다' 등 구원파의 관심과 교육 내용은 구원과 종말로 압축할 수 있다.

둘째, 박옥수 계열 구원파다. 박옥수는 1968년 디옥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 1980년대 말 대전으로 본부교회를 옮겨 교단명을 '대한예수교침례회'로 개칭하는 한편 '기쁜소식선교회'를 조직해 실내체육관 등을 빌려 본격적인 세 과시를 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이단이나 한국 교회보다 먼저 온라인으로 성경세미나를 했다. 현 본거지는 서울 서초동(기쁜소식강남교회)이다. 예전에 암 치료제 '또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며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죄 사함과 거듭남'을 강조하고, 풍유적 성경해석을 남발하고

있다. 반복적 회개를 부인하고, 삶에서 나타나는 범죄는 일일이 고백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죄 자체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주장하며, 죄인이라고 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성화가 배제된 종생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박옥수 구원파의 유관기관으로 알려진 '국제마인드교육원'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임용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직 적응과정 교육을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종교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공직 행사에서 협동심을 기른다는 이유로 시행되는 국제마인드교육원의 교육이 구원파의 포교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요한 계열 구원파의 본거지는 경기도 안양 인덕원에 '서울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요한은 중학교 졸업 이후 권신찬에게서 잠시 사사 받은 것이 교육 배경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원파 초창기 목포에서 권신찬과 합류해 활동하다 1971년 권신찬에게 목사안수를 받았다. 1983년 교회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교회와 사업은 분리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복음수호회'로 분립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깨달음은 믿음과 구별된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거듭나는 것은 복

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에 4번씩 사경회와 같은 강연회가 있다. '성경 강연회'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교회 수는 국내와 국외를 합쳐 1,100여 개 이상 되고, 교직자와 교인 수만도 무려 10만여 명 가까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해외 선교 현황을 보면 생각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 224개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 80개국에 906개 교회가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380개, 아시아 318개, 남미 147개, 유럽 29개, 북미 27개, 오세아니아 4개, 중동 1개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는 필리핀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활동 역시 하계수양회, 성경강연회, 모임 등을 통해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이단을 분별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이단들이 말씀, 봉사, 행사 등으로 정통 교회보다 매력적으로 접근해 미혹하고 있다. 선교지의 이단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이단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특정 이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단이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구원파에 대처하는 방법

구원파는 성경의 해석과 인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한국 교회는 구원파 등 이단에 대해 어릴 때부터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구원파 관련된 이단이라면 성경적인 구원관을 정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종말 관련 문제가 되는 이단이라면 건전한 종말론을 잘 이해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욱 적극적인 이단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각 교회는 때마다 이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단의 정확한 이름과 간단한 교리만이라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단 문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다고 해도 관심을 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면 절대로 관계를 금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회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단, 사이비 문의 및 제보
현대종교: 031-830-4488,
mrmad@hjdongkyo.co.kr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벗입니다”

사랑부 이진경, 김정숙 선생님의 고백 그리고 당부



발달장애인의 벗 이진경 선생님(왼쪽 사진), 김정숙 선생님(오른쪽 사진 가운데)이 꿈사랑부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가 있다. 장애 유형과 연령에 따라 꿈사랑부(미취학~중등부 발달장애인 아동), 사랑부(고등부~20대 발달장애인), 예수사랑부(30세 이상 발달장애 청장년), 누리사랑부(성인 지체장애인)로 구성된다. 현재 장애인 334명, 교사 222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교사가 많은 것 같은데, 잠시라도 눈을 땔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생각하면 교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 명 한 명의 교사가 정말 소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랑부를 정말 오랫동안 섬기는 교사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이진경(사랑부), 김정숙(꿈사랑부) 선생님이다. 이진경 선생은 16년, 김정숙 선생은 11년 동안 사랑부 교사로 섬겼다. 그들이 10년 넘게 발달장애인들의 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친정 같은 ‘사랑부’

이진경 선생님(사랑부)에게 사랑부는 친정 같은 곳이다. 출산과 육아 하느라 잠시 사랑부를 떠났다가 9년 만에 돌아왔기에 더욱 애뜻하다.

이진경 선생님이 처음 사랑부에 온 것은 1998년이다. 당시 21살이었다. 그때부터 2014년까지 16년 동안 사랑부 교사로 섬겼다. 20대와 30대,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를 사랑부와 함께 보냈다. 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사랑부에 헌신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마침 제 옆에 사랑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저희

부서에 와 보세요. 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럼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선생님을 따라서 사랑부에 갔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섬기는 일이 마냥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진경 선생님은 어땠을까?

“많은 분이 발달장애인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장애인이 없었고 만날 기회도 없었지만, 사랑부 친구들이 무섭지는 않았습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과격한 행동을 할 때가 아주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제 얼굴을 할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놀라서 울기도 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괜찮습니다.”

때로 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진경 선생님은 사랑부 교사의 자리를 지켰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저는 사랑부 친구들을 불쌍하다고 생각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주 가끔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사를 못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진경 선생님이 한동안 사랑부 교사를 원적이 있다.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9년 동안 사랑부를 떠나 있었다.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사랑부 교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랑부에 오는 것을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런 남편에게 사랑부 교사로 섬기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만 아이를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 사랑부 교사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복귀하려고 했는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쉼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조금만 쉬려고 했는데 무려 9년이나 돌아오지 못했다. 그 시간에도 이진경 선생님은 사랑부와 끈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랑부 야외활동(야유회, 수련회) 봉사자로 참여해 일손을 거들었다.

“지난해 가을 야유회에 봉사하러 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이 자연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시 사랑부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부 교사로 다시 섬기고 싶다고 말했다. 반대하면 어쩌나 속으로 조마조마했는데, 남편도 아이들도 마음을 활짝 열어줬다.

“남편과 큰아이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큰애가 제게 ‘하세요, 저는 좋아요’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진경 선생님이 다시 사랑부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사랑부에 온 이진경 선생님의 마음에 감격이 가득했다.

“정말이지 친정에 온 것처럼 편하고 좋았습니다. ‘왜 이제 왔을까?’ 하는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사랑부 친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진경 선생님이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사랑부도 다른 예배 부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넘치는 부서

입니다. 사랑부에 오면 은혜를 더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부 교사로 지원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치유와 보상을 주는 ‘꿈사랑부’

김정숙 선생님은 11년 동안 꿈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김정숙 선생님에게 꿈사랑부에서의 섬김은 일주일 동안의 고단함을 치유하고 보상받는 시간이다.

“11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꿈사랑부는 저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고단함을 꿈사랑부를 섬기면서 치유하고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선생님은 재활학파를 졸업했다. 장애인 관련 일도 하고 있다. 그래서 꿈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일에 거부감이 없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장애인 아동들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공도 재활학과이고, 오랫동안 장애인 관련 일을 해서 꿈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일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김정숙 선생님은 꿈사랑부 친구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2박 3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가 중증장애인이었는데, 3일 동안 24시간 그 아이를 돕는 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그 아이의 진정한 모습을 봤습니다. 꿈사랑부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심해서 말은 잘 못하지만,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꿈사랑부 아이들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제게 전염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꿈사랑부 아이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꿈사랑부에 대한 제 마음이 더 많이 열리니까 직장 일에도 보람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기쁘게 섬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선생님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부 교사로 섬길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부서가 낯설고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더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와보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부 아이들과 함께하면 날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사랑부 아이들 덕분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신앙과 생활

행복한 지구 만들기!

‘탄소중립’을 위한 개인의 실천과 노력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기후변화주간에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이루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한다. 나라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실천도 무척 중요하다. 개인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 날만큼은, 기후변화 주간만큼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그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나를 보면 울어라(Wenn du mich siehst dann weine).”

1616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체코 엘베강 유역의 ‘헝거스톤(Hunger Stones)’에 새겨진 문장이다. 헝거스톤은 유럽에서 심각한 가뭄의 지표로 삼았던 돌을 뜻한다. 가뭄 등으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헝거스톤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이 덮쳤던 지난해 8월, 유럽 곳곳에서 헝거스톤이 발견되고, 이 문구가 쓰인 헝거스톤마저 드러났다. 심각한 기후 위기가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개인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손 놓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행복한 지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위해, 신음하는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실천해야만 한다.

지구의 날이 그렇게 시작됐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하려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제정했다. 지구의 날은 다른 기념일과 다르다. 유엔(UN)이나 정부 등 큰 집단이 제정한 날이 아니다. 자연보호자들이 만들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했던 개인들이 앞장서 만들었다.

지구의 날 제정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가 그 계기가 되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미국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환경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당시 케네디 대통령에게 자연보호 전국 순례를 건의했고, 1970년 4월 22일 첫 번째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당시 하버드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는 지구의 날 첫 행사를 기획, 주도했다. 이날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구를 위한 토론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했다. 뉴욕 5번가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금지됐고, 센트럴파크에서는 60만 명 규모의 환경 집회도 열렸다. 그 이후 매년 4월 22일이 ‘세계 지구의 날’로 지정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전국 10분 소등



=

온실가스
2,660kg
감축

하루 버려지는 일회용품



1,035t
(1년 38만t)

플러그 뽑기



연간
29.6kWh 절약
이산화탄소
12.6kg 감소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법



자연보호자들이 앞장서 지구의 날을 제정한 것처럼, 탄소중립(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위한 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모이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지구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실천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자.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지금년부터 실천하자’라는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정말 좋겠다.

우선, 지구의 날 ‘전국 소등행사’에 참여하자. 지구의 날에 열리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우리나라의 ‘전국 소등행사’는 환경부 주최로 매년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이어진다. 공공기관과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소등행사를 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작 10분 소등이 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10분이 온실가스를 무려 2,660kg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30년생 소나무 403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비슷하다. 고작 10분이 아니다.

생활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것도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약 1,035t이다. 1년이면 38만t이 넘는 수치다. 일회용품은 소각할 때 완전연소가 되지 않아서 유독가스나 환경호르몬처럼 해로운 물질이 발생한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생활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두 개의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면 연간 3.5kg 정도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텀블러나 개인 컵 등을 새로 구매하지 말고 집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습관도 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비닐봉지 소비량이 연간 420여 개로 추정한다. 모든 국민이 하루 동안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유 약 95만 1,600ℓ, 이산화탄소 약 6,700t, 일회용 비닐봉투 5,200만여 장을 감축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꼭 챙겼으면 좋겠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는 일도

탄소중립에 크게 도움 된다. 24시간 전원이 켜진 상태인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으면 새는 전기가 줄어든다. TV,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가습기, 세탁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으면 연간 29.6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전기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12.6kg도 함께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 걷기 등을 실천하면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 교통수단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요일제 등에 참여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주 1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간 나무 71.1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이 정말 많다.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이루는 개인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 특히 교회와 크리스천은 환경보호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나부터 탄소중립

1. ‘생활쓰레기 올바르게 버리기’

1) 우산

· 우산은 재질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우산대와 손잡이 부분에 있는 철은 고철에 버리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 분리가 어려운 우산은 고철로 분리해서 버리면 된다.

2) 종이팩

· 우유팩과 두유팩은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 물로 깨끗하게 씻고 잘라서 펼친 다음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 기름이나 음식물에 오염돼 세척이 불가능한 종이팩은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한다.

· 종이팩을 모아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휴지, 건전지, 쓰레기봉투로 교환 받을 수 있다(지자체에 따라 다름).

3) 화분

· 화분은 재활용이 안 된다.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 부피가 큰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배출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배출하면 된다.

맛있는 말씀 해설

“두려워하지 말라”(마 10: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마 10:31)

새로운 변화 시기가 도래했다.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의 출현 때문이다. 세상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지난해 말 오픈한 서비스는 2개월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술의 진보와 거대한 가능성을 목격했다.

충격의 여진과 새로운 진앙의 출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선보인 코파일럿(Copilot) 발표는 더욱 쇼킹했다. 챗GPT를 자사의 오피스 프로그램과 결합해 놀라운 업무능력을 보여줬다. AI는 단 한 문장의 요청에 전문가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바로 만들어냈고, 복잡한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해 요점을 정리해 주었다. 화상회의 중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토대로 순식간에 회의록을 작성했다. 그 외중에 국내에서 ‘주님AI’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신앙과 말씀에 관한 질문을 하면, 꽤 완성

도 있는 답변을 내놓는다. AI는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도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이 출품되어 수상한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작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인공지능이 이겼고, 결국 인간이 패배했다.” AI가 보여주는 놀라운 효율은 그동안 인간이 열심히 수고해온 모든 것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인간이 해온 것 중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노동의 종말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 이 변화의 시기를 통과한 이후 자신의 존재가치가 이전과 달라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 앞에서 우리의 고민은 결국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고전적인 질문으로 회귀한다.

아담이 범죄 한 이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

치 중 하나가 땅에 내려진 저주이다.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노동이라는 매개행위를 통해 삶을 유지하게 된 인간에게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창조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키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앳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두

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무언가를 위한 대체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신다. 기술이 기능적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효용가치를 넘어선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기회를 얻을 것이다. 가치와 의미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변치 않고 영원한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도, 시대의 변화도,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김윤식 목사
(서초D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죄의 유혹에 빠진 안일한 마음

4월 24일~ 4월 30일
(사무엘하) 8:1~12:31



묵상포인트 1: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다윗의 왕권이 더욱 공고해진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큰 승리를 안겨 주신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 므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다. 언약대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윗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요나단과의 언약에 신실한 다윗을 묵상하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아람, 하맛 등을 제압한다. 다윗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승리의 결과를 주신 분이 그분임을 고백한다. 다윗은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왕위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그 집안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의 존재를 다윗이 알게 되자 그를 데려오게 한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사울 소유의 모든 밭을 돌

려주고,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한다.

묵상포인트 2: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암몬은 아람 용병을 고용해 군대의 숫자를 늘리고, 앞뒤로 진을 치는 최상의 전략까지 더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패배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많은 군대와 최고의 전략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군대를 이길 수 없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이 의지한 대상이 누구이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묵상하자.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자 다윗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낸다. 그러나 하논은 다윗의 신하들이 염탐하러 온 것으로 오해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다윗에게 돌려보낸다. 다윗에게 미움을 샀다고 생각한 암몬 사람들은 아람 등 주변국에서 약 3만 3천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한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과 군사들을 전장에 보내고, 요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워 승리한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더는 암몬과 연합하지 않는다.

묵상포인트 3: 승승장구하는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윗은 순간의 유혹에 빠져 밋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간음죄를 숨기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죄까지 저지른다. 이 일로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다. 다윗이 죄를 짓게 된 이

유와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고, 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자.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밋세바를 보고 데려다 동침한다. 밋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전장에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부른다. 우리아가 전장에서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해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자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든다. 다윗은 밋세바를 아내로 삼고, 밋세바는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악행을 책망하신다. 다윗은 즉각 회개하지만, 그의 아들은 심한 병을 앓고 죽는다. 다윗과 밋세바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짓는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다.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 결단하고 실천하자.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부에 달려 있다. 영적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신다. 내 삶에서 가볍게 여기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 버리고 회개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을 교회에서 허비하는 크리스천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켜주시려 했는지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에게 반해 결혼했고, 시댁 식구들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을 친정 식구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 행사나 명절에 친정에 갈 때면 남편과 함께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평생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다며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집회에도 몇 번 초대하려고 했는데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꺼낼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선부른 제의지와 서툰 전도 방식 때문인지 부모님이 마음의 문을 더욱 닫으셨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굳게 닫힌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친정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이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라떼는 말이야

‘나’라는 퍼즐 조각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주 안에서 인생의 소명과 기쁨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멘토님!”

즐겨보는 TV 대담 프로그램에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 선수가 출연해서 흥미롭게 시청했다. 김민선 선수는 ‘빙상 여제’로 불리던 이상화 선수가 일찌감치 후계자로 낙점한 500m 유망주다. 2026년 밀라노동계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이다.

단거리 스케이팅 선수는 육중한 체격을 가져야 유리하기에 김민선 선수의 체격은 작은 축에 속한다. 사회자가 질문했다.

“김민선 선수는 스타트라인(startline)에 서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두렵고 떨리나요?”

생글거리는 미소가 었던 김민선 선수의 대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스타트라인에 섭니다.”

출발 전부터 자신의 기록이 단축될 거라는 믿음과 상대 선수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

로 차있는 것이다.

은퇴를 앞둔 어느 선배를 만났다. 앞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고 또 치우다 보니 정년을 맞이했다며 회한에 잠겼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바람이 있었는데, 고단한 일상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됐다며 씁쓸해했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왔으며 존경과 축복의 마음을 보냈지만, 그에게 삶은 고단하고 힘든 것이었다.

우리 공동체에 사랑부(발달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를 만드신 장로님 부부가 계신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자녀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공동체 장로님들과 OGP(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에서 나눔을 했는데, 젊은 시절 방향하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장로님의 진솔한 고백이 잊히지 않는다. 그 장로님 부부는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성도들을 반기고, 사랑을 나누며, 헌신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늘 소망과 기대를 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한 부분을 만들어가시는 두 분의 환한 얼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

올해로 CGN 설립 18주년이 되었다.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비전헌금을 넘치게 많이 해주셔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남은 부분은 CGN에 후원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영상을 보았다. 선교에 대해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비전을 가지고 CGN을 설립했다. 하지만 후원으로만 운영하면 늘 빠듯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뜻을 이뤄가려는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재정을 후원으로만 채우게 하셔서 늘 부족한 가운데 운영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굶주림으로 죽은 자가 없었던 것처럼, CGN에 행하실, CGN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광대한 드라마는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와 기대된다.

피니쉬라인(finishline)의 공포와 옆에서 있는 거구의 선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막연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는 고단한 삶만 반복될 뿐이다.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소명의 길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우리의 삶을 빛나고 능력있게 만든다.

청년부 ‘순라운딩’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한 자매의 기도제목을 들으며 무척 반가웠다. 그 자매가 소명을 알아가는 여정에 나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나’를 통해 베푸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깊은 묵상과 교제가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구별되게 계획하신 나의 소명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자.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그 나라의 한 부분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만들어가자. ‘나’라는 퍼즐 조각이 빠져있는 한 하늘나라 퍼즐판은 여전히 미완성임을 잊지 말자.



오범규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비난을 멈춰라!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성품 아래 숨겨져 있던 털 다듬어지고, 어두운 곳에 있던 내밀한 모습이 드러난다. 털 다듬어진 본 모습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털 다듬어진 모습은 종종 비뚤어진 대화 형태로 드러난다. 여러 가지 대화 유형 중에 비난형은 관계에 고통을 더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비난형 대화 유형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상황만 중요하게 여긴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특성이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비난형 대화 유형인 사람은 놀랍게도 늘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삶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비난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견딜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라면 마음의 고통이 배가 될 것이다. 부부는 자신의 언어 스타일을 돌아보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유익하다.

비난형 대화 유형을 가진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난형 대화 유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의 어린 시절 대화 분위기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어린 시절 대화 분위기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난을 주로 사용했던 어린 시절 가족의 분위기에서는 본인도 비난형 대화 유형을 장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대화 분위기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비난형 대화 유형인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이 힘들어한다.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는다. 상황과 상대를 조정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비난형 대화 유형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부족하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격려를 해줄 여력이 없다. 삶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신뢰와 경험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비난형 대화 유형의 사람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환경과 상황까지다. 함께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함께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정리되지 않는 집안의 환경과 가족 구성원들의 일 처리, 행동과 습관 등이 몹시 거슬릴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다. 이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습득한 대화 방식이 비난이다. 화를 표출하

고 지적하고 비난한다. 자신이 화를 내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최상의 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비난한다. 평소에는 비난의 성향이 묻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몸이 힘들고 생활이 극에 달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비난의 대화 습관이 드러난다. 가족이 서로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비난형의 대화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가시 돌린 말을 상대방의 마음에 꽂을 수 있다.

부부와 가족관계에서 비난과 분노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난과 분노는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스파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숨어들기도 한다. 좋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세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과도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종종 사용하는 대화 유형이 비난형이라면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고 비난이 아닌 정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급한 감정을 잠시 멈춰놓고 상황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특히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네”, “당신도 힘든 것 같아

” 등 자신과 상황과 상대를 인정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다.

비난형 대화 유형을 가진 사람은 홀로 버려질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누가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는가? 그럼에도 비난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대화 패턴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타인의 한없는 이해력만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대화 유형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어”라는 식으로 배우자와 가족에게 끝없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불편함과 필요를 잔잔하게 표출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분 내키는대로 쉽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동일하게 배우자나 가족도 느끼고 있다. 감정선이 연결되는 경험은 필요하다. 가까운 사람과 따뜻한 감정이 연결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장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클래식으로 듣는 기독교

바흐, 그의 신앙은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되었는가?



유성하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
대 피아노 석사)

고자 한다.

바흐는 음악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음악의 목적이자 최종 도착지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 노래를 덧입히는 것이다. 실제 바흐는 성가곡인 칸타타만 200개 이상 작곡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는 엄밀히 말하면 ‘음악’이 아닌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바흐는 음악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할 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가진 특징을 최대한 작품에

반영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작곡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 말씀도 그의 작곡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나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숫자에 있다. 음의 길이, 높이, 박자 등 음악의 모든 것은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연이 가진 비율과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작곡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바흐가 어떻게 자연과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했는지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바흐는 자연의 비율 또는 비대칭 비율이라 불리는 ‘황금비(golden ratio)’를 작곡에 적극 사용했다. 이는 자연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미술가들이 즐겨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바흐는 이 비율을 작곡에 쉽게 활용하기 위해 단순한 원칙 하나를 세웠다. 무엇이든지 정비례로 나누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4개의 음을 작곡한다면 2개 음은 짧게 2개 음은 길게 작곡하지 않고 일부로 비대칭을 만들어 3개 음은 짧고, 1개 음만 길게(또는 1개 음만 짧고 3개 음을 길게) 작곡하는 것이다. 바흐의 평균율 1권 3번 ‘프렐류드’ 악보를 보면, 3박을 반으로 쪼개지 않고, 2대 1로 나뉜 긴 음 하나, 짧은 음 하나로 작곡한 게 보인다. 올라가는 음이 4개(도, 레, 미, 파), 내려가는 음이 3개(미, 레, 도)로 역시 비대칭(4:3)으로 작곡했다

는 것을 보여 준다.

바흐의 ‘예수 나의 기쁨 되소서’도 3박을 2대 1로 나뉜 긴 음, 짧은 음 하나로 노래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소프라노와 알토가 첫 마디에는 ‘똑같은’ 리듬으로 부르다가 2와 3마디에는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비대칭(1:2)을 이룬다. 이렇게 작곡하는 이유는 대칭을 이룰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지 ‘예수 나의 기쁨 되소서’ 마리아 헤스 피아노 편곡 버전을 들어보자 <QR코드>.



‘예수 나의 기쁨 되소서’

둘째, 바흐는 말씀에 나오는 숫자를 작곡에 적극 도입했다. 바흐는 성경의 숫자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연주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바흐 평균율 1번 ‘프렐류드’는 대곡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곡으로 35마디 곡을 작곡했다. 이는 창세기 1장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총 35번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이 1번 곡은 첫 시작을 알리는 곡이고,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메시지다. 바로 이어지는 곡인 ‘푸가’는 27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 28개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창조할 수 없으며, 모방만 할 수 있기에 그 겸손함을

28개에서 하나 적은 27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악보를 자세히 살펴 보면 가장 마지막 음 위에 ‘페르마타’라는 표시가 있다. 이는 ‘음을 두 배로 길게 누르고 있으라’는 표시다. 그래서 작곡은 27마디에 분명히 끝났지만, 귀에 들리는 음은 28마디, 하나님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다음 2번 곡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에 연주자가 실제 연주할 때 27번째 마디에서 똑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까지 음을 길게 두는 것이다. 바흐의 평균율 1번 ‘푸가’를 들어보자. 특히 마지막을 잘 들어보라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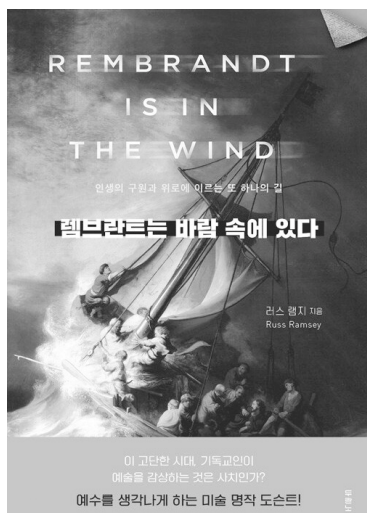


‘푸가’

황금비나 성경의 숫자적 상징은 바흐 당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쉽게 해독할 수 있는 코드적 메시지였다. 그러나 급속도로 세속화된 사회나 한국처럼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당연하지 않고, 난해한 숨은 메시지로 남게 된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 하나는 기독교 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보존하며,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바흐가 당시 세속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 영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바란다.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까운 책’

‘예수’ 생각나게 하는 미술 명작 도슨트(안내인)



〈렘브란트는 바람 속에 있다〉
러스 램지 저 | 두란노 | 24,000원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이 움트는 이 파스한 계절에 읽기 더없이 좋은,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이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술가와 작품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의문투성이 세계에 관한 이야기다. 놓치기 너무 아까운 이 특별한 인생

미술관은 무감각에 빠지기 쉬운 무의식을 미술의 생생하고 감각적인 힘으로 되흔들어 우리를 ‘살아있는 예술’과 ‘예술가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테네시주 내슈빌 크라이스트교회에서 사역하는 러스 램지(Russ Ramsey) 목사가 다정하면서 꼼꼼한 해설사로 나서 드넓은 미술사 골목골목을 누비며, 인간의 뒤엉킨 고통과 갈망과 모순, 이를 뒤덮는 총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준다. ‘굳이 왜 예술을 감상(해)하는가’라는 의문으로 내디딘 첫걸음은 책장이 넘어갈수록 그 너머에 있는 ‘우리는 왜 믿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본질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으로 뚜벅뚜벅 나아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산을 세상에 선사하고자 세운 박물관에서 일어난 현대의 미술품 도난 사건, 그리하여 30년 넘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속에 갇혀 있는 렘브란트의 걸작 〈갈릴리 바다의 폭풍〉, 그렇게 열망했으나 생전에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던 반 고흐의 평생 수고와 분투, 독보적인 작품으로 추앙받으나 실은 여러 사람의 실수와 실패의 흔적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작업한 결

과물이었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성경 속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위엄 있게 그리는데 와중에도 여러 사람을 죽였던 카리바초의 성(聖)과 속(俗) 사이에서의 외톨타기, 작품만큼이나 삶도 외로웠던 현대인의 초상 에드워드 호퍼, 촉망받던 신예였으나 붓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한 릴리아스 트로티의 선택... 아홉 명의 예술가를 중심으로 미술사, 성경 연구, 철학, 인간의 삶에 대한 풍성한 분석을 담은 총천연색 ‘이야기’들은 망가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달픔의 민낯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구속(救贖)’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가리켜 보인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널리 알려진 친숙한 이름도 있고, 그리 유명하지 않은 낯선 이름도 있다. 어떤 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고집스레 거부한 듯하다. 어떤 이야기는 화려한 승리로 끝나며, 어떤 이야기는 끝끝내 고통과 미스터리 속에서 그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같이 영광을 향한 인간의 갈망,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 우리가 영원토록 입고 살아야 할

옷인 ‘아름다움’을 주기적으로 보고 사랑하라고 일깨운다. 죄로 얼룩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라. 이는 삶과 복음을 한층 깊이 있게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이며, 아름다움을 외면한 ‘선’과 ‘진리’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삶과 연결되고, 삶이 어떻게 예술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손에 잡히게 그려 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공들여 지으신 정교한 예술품이 아니던가! 죄로 타락하고 더러운 시대를 사느라 피곤하고 회의감이 밀려드는 이들은 복음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리라. 전시회 관람이나 미술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식사하지 않고, 어떻게 예술 작품을 관람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이래도 여전히 기독교인이 예술을 감상하는 게 사치라고 하겠는가? 자, 이제 미술사적, 철학적, 신학적 통찰이 어우러진 한 권의 균형 잡힌 양식으로 선과 진리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주린 당신의 영혼을 먹일 시간이다. / 유주영 편집자

온누리복지재단 희망콘서트 ‘함께 사는 삶’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스태프 등 126명 참석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 4월 18일 (화) 희망콘서트 ‘함께 사는 삶’을 개최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기관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스태프 등 126명이 참석했다.

온누리복지재단 희망콘서트 ‘함께 사는 삶’은 1부 감사예배, 2부 식사, 3부 희망콘서트 순으로 이어졌다. 희망콘서트에는 소프라노 이슬, 황후령, 바리톤 홍승범, 테너 박준석, 하모니카 최상미,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재능기부로 출연했다. 감사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여러분은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며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미순 씨(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 유호영 씨 보호자)



온누리복지재단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함께 사는 삶’을 개최했다.

는 “맛있는 식사와 멋진 공연, 살뜰한 섬김 덕분에 모두가 힐링을 경험했다”면서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희

망콘서트에서 즐거움과 씬, 격려를 경험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고, 소프라노 이슬 씨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유대문화로 배우는 선교 영성!

대전온누리교회 ‘비저니어링’ 개최

대전온누리교회가 지난 4월 18일 (화)부터 20일(목)까지 2023 ‘비저니어링’ 집회를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했다. 성도 150명(온라인 포함)이 참가했다. 이번 비저니어링 집회에서는 류모세 선교사(이스라엘투데이 편집장, <열린다 성경> 저자)가 ‘유대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현진 권사(대전온누

리교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더욱 바로 알게 되었다”면서 “깨닫고 배운대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크리스천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한지우 학생(대전온누리교회 꿈땅)은 “성경 말씀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CGN 신규 프로그램 ‘이스라엘로 오십쇼’

개그우먼 조혜련, 박미선의 성지순례 이야기

성경 지식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주는 CGN ‘오십쇼’가 이번에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났다. 스페셜 게스트는 개그우먼 박미선 권사다.

CGN 신규 프로그램 ‘이스라엘로 오십쇼’는 기념 교회들을 방문하며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걸으며 신약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총 6편이 매주 월요일 CGN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박미선 권사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저보다 신앙생활이 훨씬 늦었지만 뜨겁게 믿는 것을 보면서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함께 성지순례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 김현주 기자 khj@onnuri.org

두플러스 1년 구독 이용권 출시

‘스마트 플랜’과 ‘프리미엄 플랜’ 판매

두란노서원에서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 ‘두플러스’ 1년 구독 이용권을 출시했다. ‘스마트 플랜’과 ‘프리미엄 플랜’ 이용권을 1년 구독할 수 있다. 이용자가 더욱 손쉽게 구매하고, 선물할 수도 있다. 해외 거주자나 선교사들도 두플러스 이용이 한결 쉬워졌다.

‘스마트 플랜’은 두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QT 및 도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앙의 깊이를 누

리고 싶은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은 18만 원이다.

‘프리미엄 플랜’은 스마트 플랜에 더해 목회자, 신학생, 리더들에게 유용한 <생명의삶 PLUS>, <목회와신학>, <그말씀>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24만 원이다. 두플러스 1년 구독 이용권은 두란노서점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34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4월 30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온라인

창조신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1~4주), 오후 5시(5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3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창조신앙스쿨은 창조신앙이 기록

교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유와 창세기의 역사성을 배운다. 진화론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현실에서 거짓된 이론과 타협이론의 정체를 밝히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돕는다.

문의: 010-5185-3542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9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

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문의: 02-2182-9114

말씀 해설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해설이 필요한 말씀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격주 발행하는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소개할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두란노아버지학교, 장신대와 업무협약

영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김윤웅 총장(왼쪽)과 최성완 이사장(오른쪽)이 영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이하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지난 4월 14일(금)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와 영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두 기관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의 정체성과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교회 및 목회자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란노아버지

학교는 신학생 및 목회자가 가정과 교회를 올바르게 이끄는 경건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장신대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최성완 이사장(두란노아버지학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들이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남기고 싶은 신앙유산 내 글씨 믿음고백’

6월 14일~7월 12일 매주 수 서빙고 두란노홀

‘남기고 싶은 신앙유산 내 글씨 믿음고백’ 세미나가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임), 노치형 목사(중종로공동체), 이비오 목사(양천공동체)

가 교재 <내 글씨 믿음고백>(두란노)을 활용해서 강의한다. 자녀나 손자들에게 훌륭한 신앙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시니어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 원. 6월 7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37

3월 비전헌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라크 아르빌 연합교회 후원'



/ 말라트 베이톤 목사(아르빌 연합교회)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제 삶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온누리교회와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저의 모교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저와 아르빌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과 시간, 우정과 협력 관계, 재정과 사람 등 많은 것을 투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와 사역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햇볼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에서 수학하던 3년 동안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제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이후 펼쳐질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지만, 처음 지낼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라크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해 함께해 줄 하나님, 온누리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동, 특히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쿠르드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엄청난 사역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1년 바샤르 박사(온누리교회 현지인 선교사)와 제가 소수 인원으로서 개척한 가정교회가 오늘날 3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수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지내며 배운 것이 이라크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 2000선교본부, 두란노해외선교회

(TIM)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바그다드에서故 김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이끄신 선교팀을 처음 만난 날부터 이라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동역하는 관계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550석 규모의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사역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지원해주신 후원금으로 아르빌 연합교회는 이번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중동을 위한 선교 기지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쿠르드인 지역과 이라크, 중동 지역과 그 너머에까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내고 받는 기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를 우리의 자매 교회로 여기며 앞으로도 많이 배워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와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라크 아르빌 연합교회 건축 현장.

건강한 신앙생활



/ 홍순철 성도(마포공동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하신 줄 너희는 알지 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3-4).

사랑하는 지체들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묻고 싶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다. 하루를 살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입술로 감사를 수 번 고백한다. 감사로 아침을 열면 그날 하루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 (Warner Sallman: 1892~1968년)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Head of Christ’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으로 워너 솔맨은 가장 인기가 있는 화가가 되었다.

워너 솔맨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동기가 있다. 1917년 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중병(重病)에 걸렸다. 의사가 그에게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라고 진단하고,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라고 통지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워너 솔맨의 마음이 절망적이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다. 워너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

감사의 약

며 감사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워너 솔맨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감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에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며 ‘Head Of Christ’를 감사하면서 그렸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던 그의 몸이 3개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병원에서 다시 진단해 봤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의 주치의였던 존 헨리가 깜짝 놀라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느냐?”고 물었다. 워너 솔맨은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고백했다.

“다른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워너 솔맨의 대답을 들은 주치의가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라고 말했다.

감사하는 삶은 기적을 만든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매일 감사의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감사의 약을 건네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성도들이 감사하고, 감사를 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이다. 크리스천들로 인해 감사로 물드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유아세례 간증



부: 장덕일, 모: 장지혜, 유아: 장은호

은호를 만나기까지 그 많은 눈물과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고, 또 눈물이 흐릅니다.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몇 번의 난임 시술 실패를 겪고 나서 새 생명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마치 출구를 모르는 긴 터널에 있는 듯 힘겹고, 슬픈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화도 났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주제로 시작된 우리 부부의 대화에서 지금의 시련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점점 우리 부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대화가 많아졌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가 연합하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예전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았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다. 말씀을 붙잡는 하루하루가 축복의 선물이라 여겨졌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아이를 향한 기다림이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준비로 바뀌었다.

그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 임신을 확인한 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순간이 우리 부부에게도 오는구나!”하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아내와 함께 그간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다.

임신 내내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우리의 격정과 달리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 아

내가 “이 아이는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서 한자 ‘은혜 은, 부를 호’를 붙여 ‘은호’라고 이름 지었다. 잘 크는 은호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자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한다.

요즘 육아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부모로서 아직 모르고 부족한 게 많다. 가끔 그 귀한 선물이 벅차고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애쓰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은호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함으로 가르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은호의 유아세례가 그 시작이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장로칼럼

올바른 식습관과 좋은 먹거리 운동

안용태 장로
(일산파주공동체)

최근 15~20년 사이 ‘장염’ 환자가 대폭 늘었다. 대부분 세균성 혹은 아메바성 원인의 중증 장염보다는 비교적 경증의 바이러스성 장염이 주류를 이룬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그 이유를 한국인들이 자연 그대로의 천연식품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가공된 식품을 많이 접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식품 대부분은 지역 재래시장에서 공급받았다. 대형마트는 물론 없었고, 모든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은 동네 재래시장에서 별도로 가공되지 않은 채 구매해서 소비했다. 지금은 어떤가? 소위 ‘유통’이라는 과정이 생겨났다. 사실 유통은 보관과 운송뿐 아니라 ‘가공’이라는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장기간 운송과 보관을 위해 필수적으로 음식을 자연상태에서 첨가와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돼지고기는 햄이 되고, 생선은 어묵으로, 불편하게 계를 사서 까먹기보다 게맛살을 요리 재료로 사용한다. 이제야 만두나 부침γκα까지 비닐에 포장되어서 데워서 먹기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식품첨가물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패스트푸드’ 홍수까지 덮쳤다.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장기인 ‘장(腸)’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장염 외에도 대장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대장게실 등 과거에 드물던 서구적 질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1인

당 식품첨가물 섭취량이 연간 약 4kg, 평생 320kg을 섭취한다고 한다. 무심코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의 섭취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대부분 식품첨가물은 안정성을 평가한 이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아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나 특정 식품첨가물에 민감한 경우에는 안전량을 섭취해도 부작용이나 독성이 생길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부작용을 살펴보자. 음식과 약물 염료로 사용되는 ‘타트라진’은 사탕, 치즈, 핫도그, 아이스크림, 과자 등에 들어있다. 과잉 섭취하거나 민감한 경우 구역, 설사, 팍, 가슴 조임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스피린 과민환자에게는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항산화제로 지방의 산화 예방에 사용되는 ‘BHT’ (Butylated Hydroxytoluene)와 ‘BHA’ (Butylated hydroxyanisole)는 만성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셀러드, 새우, 버섯, 감자튀김, 말린 과일이나 음료수에 많이 사용되는 ‘아황산염’의 경우 천식에 대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과거 한국인의 암 사망률 4~5위에 머물던 대장암이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여성 암 사망률의 2위가 되었다. 남성 암 사망률의 3위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식품첨가물, 패스트푸드와의 전쟁 중이다.

그 대안은 ‘슬로푸드’다. 슬로푸드란 패스트푸드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오는 음식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식재료와 맛을 지키고, 전통적인 요리법을 보존하는 운동이다. 어떤 개인만 노력할 일이 아니다. 온 국민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 올바른 식습관과 좋은 먹거리 운동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시급을 다투고, 중단없이 지속할 일이다. 이것은 참으로 복음 전파 못지않은 또 하나의 선교 주제다.

권사칼럼

빨셈의 반전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관계가 편안할 때는 서로 행복하다. 그러나 상대를 믿지 못하고 불신을 가질 때는 불행에 빠진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언제 상대에게 이용당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늘 긴장하고 경계하게 된다. 서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은 행복하다.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여는 사이가 되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게 여겨진다. 그런데 사람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불편하고 사람이 무서워지기도 한다. 밤중에 후미진 골목길에서 불쑥 사람을 만나면 두렵기까지 하다.

불안한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다. 좋은 인간 관계의 기본은 서로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상대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으면 내 양심이 행동 기준이 된다.

지금은 다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시어른, 시누이, 친정 부모님을 아래, 위층에 모시고 20년 이상을 함께 살았었다. 여러 식구가 한 집에 살면서 감정적으로 부딪칠 일이 없었을까마는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오순도순 살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내가 상대방 부모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일상이 바빠진다면 반전이 부실할 때도 있었다. 여러 식구 빠듯하게 살다 보면 부모님들 필요에 소홀해질 때도 많았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일로 서운한 내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었다. 그럴 때 남편이 참 고마웠다. 미안한 마음에 내가 더 잘 해드려야

지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다. 때로 내 부모에게 남편이 다소 서운하게 할 때도 있었다. 나 역시 남편에게 한 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을 온전히 믿어주면 상대와 진솔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시골집에 원룸 증축 공사를 하기로 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애쓰는 시공회사 사장에게 공사비를 미리 완불했다. 통상적인 거래 관계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일처리였다. 서로 신뢰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친구들은 나에게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며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침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앞드리는 그 사람 됨됨이를 알기에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다. 곧 시작될 줄 알았던 공사가 허가가 늦게 나와 예정보다 몇 개월 늦어졌다.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니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건설회사 사장은 아침마다 공사 현장의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준다. 최선을 다해 짓고 있는 모습이 느껴진다. 공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주인이 없는 공사이기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주시니 더 없이 고맙다. 어느새 벽도 서고 천장 마감도 끝났다. 사람을 믿는다는 일이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한다. 집을 다 지은 다음에나 가볼 참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

한발 물러서 상대 입장을 헤아려주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 마음이 편하고, 넉넉해진다.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늘 덧셈으로 내게 돌아온다. 빨셈의 반전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느낀다. 공사를 맡겨 놓고 마음 졸이고 참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편이 있어서 감사한다. 모쪼록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며 평안 안에 거한다.

신앙에세이

윤현규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2021년 12월이었다. 대학청년부에서 수원온누리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역지 이동을 준비하던 어느 날, 수원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팀장님께 연락이 왔다. 수원 예수제자학교 담당 장로님과 팀장님, 총무님께서 서울로 오셔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앞으로 수원 예수제자학교를 담당하게 될 나와 예수제자학교 관련 논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식 발령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리더십 분들께서 수원에서 서울로 오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속히 나를 만나시겠다고 하니 상당히 놀랐다. 그렇게 수원 예수제자학교 리더십들과 나의 첫 만남을 가

졌다.

청년부를 섬기는 동안 예수제자학교 훈련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다. 가끔 리더십으로 섬기던 청년들이 예수제자학교에 등록해서 한동안 공동체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과정일까 의문을 가졌었다.

예수제자학교에 관한 궁금증과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수원 예수제자학교 리더십들을 뵈었다. 그분들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뜨거운 열정’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제자학교를 잘 운영하겠다는 그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

2022년 수원 예수제자학교를 담당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예수제자학교 훈련 과정에서 성령님은 학생들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질병, 자녀들의 문제까지 개입하셨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다.

특히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영혼의 쓴 뿌리와 가시들을 기도와 말씀,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나타났다. 울고, 웃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완전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과 도전이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의 영적 변화 또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예수제자학교 입학 전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 등으로 언제나 근심하고 억눌려있던 학생들이 예수제자학교를 졸업 즈음에는 시선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맞춰져 있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 래서인지 학생들의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

가정이 회복된 학생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깨달은 대로 실천했더니 가정에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 각 공동체와 사역팀으로 돌아가 자발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시작했다. 순장으로, 사역팀원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제자학교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싶거나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성도들께 나는 주저 없이 “예수제자학교에 등록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 쓴 뿌리까지 모두 품고, 오직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려고 애쓰는 성도들과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제자학교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한다.

수원 예수제자학교와 성령님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초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매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 (추후 주일 연습 재계)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010-8285-6435 CMN 서빙고 의료데스크 의료진 모집 일시: 매주 주일 오전 9:00~오후 2:00 장소: 서빙고 본관 1층 로비 분야: 의사, 간호사, 약사 '55기 젊은부부학교' 일시: 6월 3일~24일 매주 토 4주간, 오후 3시~9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1주: 과천로고스센터) 대상: 결혼 12년 차 이하, 선택순 40가정 (결혼 13년 차 이상 별도 문의) 비용: 가정당 20만 원(6월 12일까지 입금 시 18만 원) 신청: 카카오톡 '온누리젊은부부학교' 친구 검색 및 신청서 제출 문의: 카카오톡 '온누리젊은부부학교' 친구 검색 후 채팅 상담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해외저작권 업무 담당 1명, 큐티지 편집자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료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OBC 빌립보서 양재 목요 저녁반 일시: 5월 4일~6월 15일 매주 목 장소: Zoom 등록: 5월 10일까지 신청: 아이스쿨 문의: 02-570-7438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일시: 5월 14일~6월 18일 매주 주일 오후 3시~5시 30분 등록: 5월 21일 신청: 아이스쿨 회비: 5만 원 문의: 010-5217-3060
---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를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를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대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에펠렐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에펠렐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에펠렐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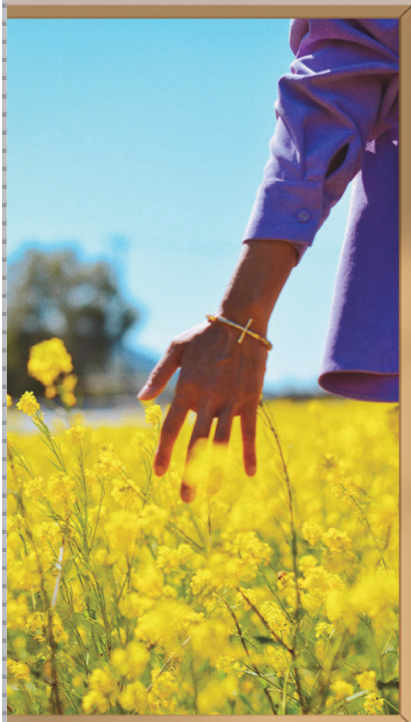
두란노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생명의 삶」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를 사진에 담아 주세요.



2023. 4. 15 SAT - 6. 30 FRI

공모 주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잘 표현한 작품
(#믿음 #목상 #일상 #감사 #은혜 #감동)

응모 대상

「생명의 삶」 독자 누구나(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공모 기간

2023. 4. 15 - 6. 30(최종 결과 8월 중 발표)

작품 규격

작품 수: 1인당 3작품 이내

형식: JPG 또는 JPEG 권장

작품당 20MB 이내, 해상도 2700X4050 pixel 이상 권장
작품 촬영 후 보정 없는 원본 사진 제출
표지 적용을 위한 세로형 사진 권장

시상 내용

구분	인원	시상 내용
최우수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우수상	3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가작	5	상장 및 상금 5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입선	5	상장 및 상금 3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두플러스 1년 이용권(20만 원 상당)

응모 방법

www.durannoQT.com 또는
QR코드로 온라인 접수

문의 durannoQT@duranno.com



-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상작은 월간 QT지 「생명의 삶」 표지로 사용됩니다.
- QR코드로 공모전 페이지에서 자세한 응모 내용과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